

전주 한옥마을의
하룻밤



이용요금 2인기준 6만원~40만원

명상 다례·다식만들기 등 체험도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주시 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사) 이음(옛 전통문화사랑모임)이 운영하는 한옥생활체험관을 비롯해 향교의 부속건물로 유생들을 교육했던 양사재, 1908년 판소리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학인당(전북 민속자료 8호) 등 14곳의 한옥숙박 체험시설이 있다.

이용요금은 2인기준 6만원부터 40만원까지 다양하다. 일부 방은 장작불을 때는 구들장방이다. 이곳에서는 고택(古宅) 숙박뿐만 아니라 명상다례, 전통예술, 다식만들기, 전라도소리 한가닥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구비돼 있다. 주말에는 한옥민박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한달정도 앞서 여유롭게 예약해야 한다.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eonju.go.kr)의 '한옥마을 숙박시설'에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링크돼 있다. 최근에는 한옥마을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한 숙박비가 저렴한 '케스트 하우스'(063-286-8886)도 생겼다.

■ 전주 한옥마을 한옥숙박 시설

시설명	객실/기준 이용요금(2인기준)	연락처	홈페이지
전주 한옥	9/35 7만~13만원	287-6300	www.jhanok.com
상월체험관			
설에원	6/18 6만~10만원(6인)	288-4566	cafe.dau.net/tifdpdns
승광재	3/10 5만~10만원(4인)	283-0071	www.royalcity.or.kr
아세현	5/24 6만~10만원	287-1677	www.kiawhouse.com
양사재	8/30 5만~6만원	282-4959	www.jeonjutour.co.kr
동락원	11/30 6만~13만원	287-2040	www.jhanok.co.kr
풍남헌	14/35 6만~10만원	286-7673	
학인당	7/14 6만~40만원	284-9929	cafe.naver.com/hakindang
소달원	7/24 5만~12만원(6인)	070-7138-8006	
부용한	9/35 7만~10만원	010-8875-8587	
일락원	5/30 5만~15만원(6~10인)	011-655-0456	
산민재	3/7 4만~15만원(8인)	010-5520-5090	cafe.dau.net/samminje
첨단원	3/15 6만원	285-3783	cafe.dau.net/kgoodhome
모란다원	4/16 6만~20만원(6~8인)	282-8687	cafe.dau.net/jang707

툇마루·구들방서 찾은 여유 “옛것이 좋구나”

“전~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언가?”

15살 중학생 밀네미와 13살 초등학생 아들에게 물었다.

딸 : “걸 그룹 ‘소녀시대’ 태현·서현 고향, 한옥 마을...”

아들 : “난 비빔밥, 한옥마을...”이라는 답이 들려왔다.

도심 속에서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 요즘 지역 대표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과거 비빔밥이나 콩나물 국밥으로 널리 알려졌던 전주가 이제는 ‘한옥마을’이라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한옥마을’은 지난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최고의 영예로운 상인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되는 경경사를 맞았다.

◇한옥에서 하룻밤=지난달 28일 밤늦게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해 어렵사리 예약한 한옥에서 가족들과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 한옥마을을 돌아왔다. 이날 머무른 곳은 전주향교와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부용한’(芙蓉軒).

이석재·고옥자(62) 부부는 “70여년된 한옥을 지난해 바깥 유리문을 달고 방안에 화장실과 세면 기를 설치하는 등 한옥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묵을 수 있도록 손을 본 후 민박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1935년 당시 관료들이 향교 인근에 각기 개성을 살려 전통 한옥을 좌우 12채를 지어 살았는데 이후 이곳을 ‘부용주택’이라 불렀다는 데서 명칭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폐쇄적, 수직지향적이면서 규격화, 개별화된 콘크리트 블록에 간접 사는 아파트문화에 길들여진 요즘에 한옥생활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가족들과 나란히 두꺼운 솜이불을 덮고 떠뜻한 온돌방에서 자는 한밤은 새롭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방문을 여니 빗마루 너머로 소리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밭은 한옥의 처마선과 어우러져 운치를 자아냈다. 대신 아이들의 관심사는 시래기국에 조기구이, 김치, 두부조림, 버섯, 쇠고기 장조림 등 정갈한 아침상에 쏠렸다.

교사 동계연수차 전주를 찾아 일행들과 한옥생활체험관에서 묵은 고안역(46·부산시)씨는 “도심지 삶 속에 예스럽고 전통적인 것이 고스란히 살아 있어 친근하고 우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장작불을 때는 한옥 구들장 방은 머리와 몸이 다 뜨거워지는 찜질방과 달리 등을 대면 온몸이 ‘노긋노긋’ 하게 녹는듯했다”고 말했다.

◇한옥마을 걸어서 한바퀴=“1977년 ‘한옥 보존지구’로 둑으면서 보수공사를 못해 주민들이 떠나기도 하고 슬럼화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개발에 따른 덕분에 역설적으로 전통 풍광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2층 집은 1930년대 지은 ‘신변호사 백’입니다. 당시에도 상류층들이 유



오목대에서 내려다본 전주 한옥마을 전경. 지난 29일 전주 한옥마을 투어에 나선 날, 때마침 눈이 내려 운치있는 겨울풍경과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오목대는 남원 황산벌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개경으로 개선하던 이성계가 전주에 들려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곳이다.

문고리·문풍지...한국의 숨은 매력에 흡뻑

고즈넉한 정취, 700여채 한옥 둘레길 투어

법양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주거형태를 선호했습니다.”

이선주(41)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전주 한옥마을 팔자지붕이 겹겹이 내려다보이는 오목대 포인트에서 전국으로 온 투어객 20여 명을 대상으로 코스별로 상세한 설명을 했다. 때마침 이른 새벽부터 내린 눈은 한옥마을을 새하얗게 변신시켜 더욱 풍광스럽게 만들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동행해 한옥마을을 돌아보는 ‘해설과 함께하는 한옥마을 투어’는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 10시, 오후 1·3시 등 3차례 한옥마을 안내소(063-282-1330)에서 출발한다. 또 매일 3차례(오전 11시, 오후 2·4시) 경기 전 정문에서 경기전 해설투어도 마련된다. 상세한 프로그램은 ‘한옥마을 여행’ 사이트(www.jeonju.co.kr)에 나오있다.

교동 일원에 한옥이 밀집하게 된 까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택에 대한 대립의식과 민족자긍심이 작용한 결과이다. 일제가 남문(동남문)제외하고 전주성 전체를 훨씬버린 이후 일본인들이 성내로 들어와 점점 세력이 확장되자 이를 대비한 반발로 1930년대 의식있는 양반들이 성문 밖이었던 고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를 축적한 대·소지주와 상업으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 역시 이곳에 고급 주택을 짓고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한옥 집단구역이 형성됐다는 것.

한옥마을 내에는 700여 채의 기와집 외에도 조선왕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의 아진(御眞)을 봉안한 경기전(慶基殿)과 영화 ‘악속’에서 박신양과 전도연이 비밀 결혼식을 올린 비잔틴풍의 로마네

스크 양식의 전동성당(1914년 완공), 전주출신으로 대하소설 ‘홍불’을 남긴 최명희(1947~1998) 문학관,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 등 다양한 시대의 유산들이 어우러져 있다. 특히 전동성당은 헬리상벽돌과 천주교 순교자들의 피가 묻은 돌을 주춧돌로 사용해 건립됐다고 한다.

또한 옛 전주성벽 자리인 태조로를 중심으로 산재한 전통술박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부체문화관, 전주 전통한지원, 전주 공예명인관 같은 다채로운 전통문화 시설을 찾아 기웃거리고 소리문화관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사드락 사드락 걷는 내내 새로움을 맛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주한옥을 인근 유적지를 연결하는 ‘전주한옥마을 둘레길’도 개설돼 있다. 공예품 전시관을 출발해 당산나루→양사재→한벽루→지명자산 성지입구→서방바위→각시바위→구 철길터널→오목대를 거쳐 한옥마을 명품관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2시간 20여분(총 7.054km)이 소요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의 하룻밤은 새것만을 찾아 질주하는 세대 속에서도 오랜 시간 부둥켜안고 지켜야 할 우리 문화의 정수(精髓)와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고향’ 같은 포근함을 안겨줄 것이다.

/글·사진 = 송기정기자 song@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절
점포가 형성되어 월세가 더
많은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려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업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월 011-602-2532
(광주은행 신분증영 대인동 소방서간판)

애플지식센터

사무실·연구소
분양 및 임대
<R&D특구>

정부종합청사 옆(첨단)

▶ 1·2층 복층구조

▶ 전용 32坪, 총 64세대

▶ 각종 시스템 냉온방기 설치

▶ 권장업종

노무사, 관세사, 기업부

설연구소, 컴퓨터개발

업, 건축설계사무소, 토

목설계사무소, 디자인사

무실, 종합건축사무실

▶ 본 광고물건은 전속 계약 된 물건임 ■

010-2441-1610

현대공인중개사

토지 금 매매

▶ 서구 마륵동, 생산녹지, 3002坪(908평), 매매가 15억원대 출 농협7억 김대중건번션 인근, 교회

식당 창고 공장 용도다양

광산구 토지 매매

▶ 광산구 양동, 계획 관리지역, 28,845坪(8,725평), 토지 전체면적 15,818坪(4,784평)전용 되어있음, 건축물 637.46坪(192.83평), 현재 쌓

매장, 적합한 용도 : 기도원 수련원 공장 창고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가능,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2차선도로에 접 21,914坪(6,629평) 매매가 22억

(6,629평) 매매가 22억

수익성 좋은 상가건물 매매

광산구 우산동, 대지 321m²(97평) 건물 지하1층

지상6층 1326坪(401평) 임대 내용 : 보증금 2억1천5백만원 월 740만원(부기기자세 별도), 아파트

2,300세대인근, 대출 3억원, 매매가 12억원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NH공사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준공된 태양광발전소 구함.
용량 100 -1,000KW.

차고지 임대구함

면적 2,000坪(600평)정도. 상업. 주거3종.

준주거. 자연녹지.

상촌동 나대지.Ⅲ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2,992坪(905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상당수이며, 도시형생활주택,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일부 분할가능.

신덕동 과수원(전원주택 용지)

면적 3,423坪(1,035평).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김나무 과수원, 낭향, 횡룡강변, 관리사 및 창고

허가등록, 전원생활 적합: 매매가 3.3坪당 15만원.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坪(2,941평) 3.3坪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